

만민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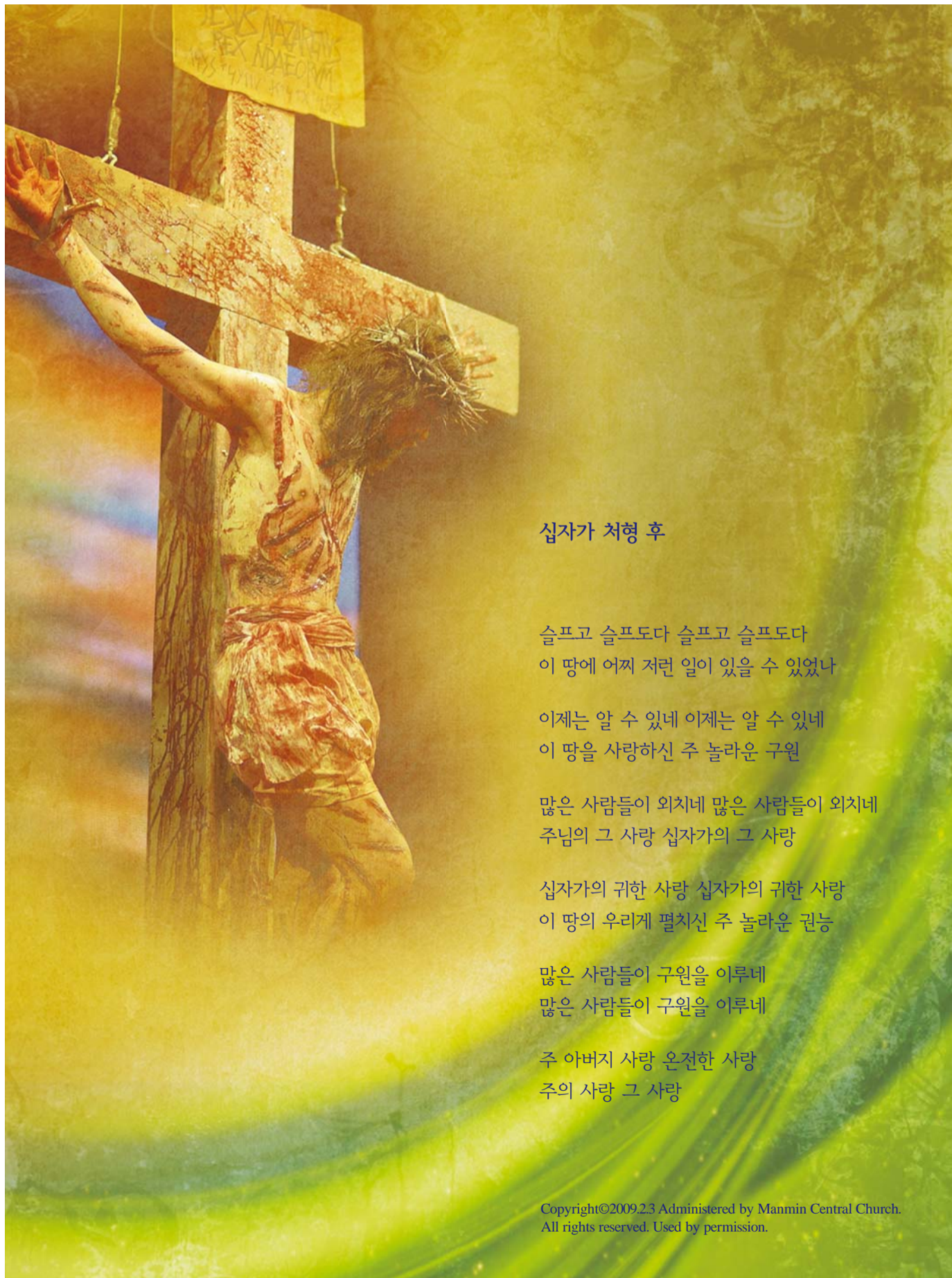
제574호 2013년 3월 2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는 고난주간

금요철야예배 1부 '주는 그리스도' 설교, 2부 기념 공연



십자가 처형 후

슬프고 슬프도다 슬프고 슬프도다
이 땅에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이제는 알 수 있네 이제는 알 수 있네
이 땅을 사랑하신 주 놀라운 구원

많은 사람들이 외치네 많은 사람들이 외치네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귀한 사랑 십자가의 귀한 사랑
이 땅의 우리에게 펼치신 주 놀라운 권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네

주 아버지 사랑 온전한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에 앞서 이번 주간은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고난주간이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부터 '천국의 열매'라는 주제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기도회(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인도)가 열렸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사랑을 떠올리며 특별한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갖고 있다.

3월 24일 주일 대예배는 고난주간 첫날인 종려주일을 맞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주는 그리스도 1'(사 53: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아울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 금요일에는 전 성도가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

3월 29일 금요철야예배(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1부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는 그리스도 2'(빌 2:5-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 2부에는 예능위원회(위원장 이희진 목사) 주관으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부활절 기념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신 31:19, 22)으로 연출되는데, 올해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찬양', '베드로의 찬양', '사도 요한의 찬양' 등 신곡들이 발표된다.

1막 '남은 이들의 고백'에서는 주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린다. 2막 '회상-십자가의 처형'에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떠올려본다.

3막 '회상-부활의 주'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4막 '승천하신 주'에서는 주님의 승천을 끝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번 공연에는 연기팀과 스태프, 임마누엘 성가대 일부와 닛시 오케스트라 등 270여 명이 참여하며 예년보다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니엘의 선

“...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6:21~22)

유대 민족인 다니엘은 소년 시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철저히 배척했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행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큰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보기에 의로운 명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결여된 의는 온전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생명에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 과정을 보면 그 마음과 고백이 얼마나 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셨던 다니엘의 선은 무엇일까요?

1. 자신을 모함해 죽이려는 상대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

다니엘은 바사 왕 다리오 시대에 전국을 다스리는 세 총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뛰어나 왕의 총애를 받았지요. 왕은 모든 일에 흠이 없는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가해 궁지에 몰아넣고자 계락을 꾸밈니다. 그들은 국사에 대해 고소할 틈을 찾았지만 아무런 흠이나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무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율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계락을 꾸밈지요.

곧 다니엘이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왕에게 제정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왕의 어인까지 짝어 절대 번복할 수 없게 만들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모함하기 위해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능히 알 수 있었지요. 더구나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기에 얼마든지 왕에게 악한 자들의 계락을 알려 분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고하지도 악한 무리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잠잠히 있었지요. 금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악한 자들의 계락을 왕에게 고한다면 그들이 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왕께 신임받는 것을 이용해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만일 상대에게 분명히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말한다면 선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선한 만큼 말할 때 상대에게 해가 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마음에서 걸러지지요. ‘이 말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거나 어떤 뜻을 꼭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선한 표현으로 돌려서 말을 합니다.

2. 민망한 입장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 주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은 악한 자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신실하고 굳건했습니다. 다니엘이 금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기도할 것을 알았기에 이를 이용한 것이지요.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자 즉시 왕에게 고소합니다. 왕은 그제야 그 금령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락임을 깨닫지요.

왕이 심히 근심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라고 명한 후 왕은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위로합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왕에게 하나님을 심어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심정은 너무나 총애하는 신하를 지키지 못하고 사자 굴에 내어 줬야 했기에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 그날 밤 왕은 밤이 다하도록 금식하고, 기악을 그쳤으며 잠도 이루지 못했지요. 이튿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자 굴에 가서 슬피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상식대로라면 다니엘은 이미 생명을 잃어 그 시신마저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사자 밥이 되어 할 상황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지요.

구구절절 왕의 마음을 위로하는 선한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왕에게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왕께서는 어찌하여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저를 죽음으로 내

몰았습니까? 보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서러워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면 왕은 너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랐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 굴에 던져진 후, 왕이 얼마나 슬퍼했을까를 먼저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한사라도 빨리 왕에게 알려서 애통을 그치게 해드리고 싶었지요. 이에 새벽같이 달려온 왕에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왕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아뢰었지요.

만일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다니엘과 같은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어떤 일이 진행됐는데 일의 결과가 당장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요?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거 보십시오. 제 말대로 하지 않더니 이렇게 일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며 상대를 무안하게 했습니까?

이런 말은 죄책감으로 눌러 있는 상대에게 더 큰 짐을 지게 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무안해하는 상대를 더욱 민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누(累)가 되거나 상대를 무안하게 한다면 삼가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이것이 자연히 마음에서 제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대 입장을 이해하며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직장, 가정에서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그곳이 곧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선대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를 선대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 줌으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부활체와 온전한 영체

기독교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 일컬을 정도로 '부활'은 복음의 핵심 요소이다.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후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절을 앞두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 '부활체'와 '온전한 영체'에 대해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껴보길 바란다.

◆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알리신 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리고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말한 대로 장차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처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천국집을 예비하신 후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주님을 믿고 무덤에 장사된 자들의 몸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영체와 결합해 부활체가 된다. 그 뒤를 따라 살아서 주를 믿는 성도들도 홀연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51~53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하고 있다.



부활체를 입고 공중강림하신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 공중강림 이후 부활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체에 대해 알려 주며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심어 주셨다. 썩지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체가 되면 육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으며,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호흡도 가능하며, 음식도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곳에 홀연히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권면하며 부활을 증거하셨다(요 20:19~29, 눅 24:42~43).

부활체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3세의 모습인 신령한 몸으로서 머리카락은 살짝 웨이브가 있는 금발이며, 남자의 키는 약 190cm 정도, 여자는 170cm를 조금 넘는다. 33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신 때로서 인생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백보좌 대심판 이후 온전한 영체

영체(靈體)란, '영의 고유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사람, 짐승, 식물들이 각각 고유한 육의 형태를 입고 있듯이(고전 15:39) 영도 고유한 형태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 죽음을 맞이했느냐, 얼마나 성결됐느냐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사망한 시점이 어린아이 때면 영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며, 청년 때면 청년의 모습, 노년 때면 노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영체의 모습으로 천국 대기장소인 낙원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은 주님의 공중강림과 부활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부활체'로 변화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후 천년왕국을 거쳐 백보좌 대심판을 받고 각자에게 정해진 천국 처소로 가게 된다. 그래서야 '온전한 영체'를 이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부활체와 온전한 영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온전한 영체는 부활체의 윗단계라 할 수 있다. 각 사람의 성결한 정도뿐만 아니라 백보좌 대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상급과 영광,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국에서도 온전한 영체를 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 말씀대로 살았으며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천국 처소가 어디인지, 같은 처소 안에서도 얼마나 상급과 영광이 큰지 바로 알 수 있다.

◆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에 들이실 때 부활체라는 중간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천국과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중은 공간의 밀도나 시간의 흐름 등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체와 그러지 못한 영체

가 느끼는 영의 공간의 느낌은 많이 달라서 마치 꿈과 현실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영체가 영의 공간에서 갖는 느낌이 꿈과 같다면,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체는 영의 공간을 현실로써 느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영체만으로는 온전하다 할 수 없으며 부활체라는 중간 과정을 겪어야 천국에서 온전한 영체로 살아갈 수 있다.

3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March (2013.3.24~3.30)
www.gcntv.org

이제부터 모사의 생명의 말씀

-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1-5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 주 예수 그리스도
- 2차 영혼육 8-12
- 창세기 강해 44-48
- 천국 8-12

GCN TV 설교

- 목과 영 3-7 (이수진 목사)
-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이희선 목사)
- 생각의 통로 (이미영 목사)
- 기쁘시게 하는 자 (이미경 목사)
- 'GCN TV 특강' 십자가의 도 3-7 (정구영 목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 12-16
- 찬양과 경배 (3) 42-48

해외성회 시리즈

- 뉴욕연합대성회 2
- 독일연합대성회 종합편

부활절 공연

- 2010년 '우리주의 사랑'
- 2011년 '주님 가신길'
- 2012년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 2013년 '주는 그리스도'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아는 신앙생활 아주 행복합니다”

송윤숙 권사 (2대대 16-2교구)



진단 결과, 7×10 센티미터 크기의 자궁근종이 발견됐고, 의사선생님은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정해 주셨지만 저는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회개하고 자궁근종을 치료받아 성경 말씀을 통해 질병은 죄로 인해 온다는 사실(출 15:26)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의뢰하며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 낙태 수술한 일이 가장 먼저 떠올랐지요. 또한 지역장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옳다고 주장해 일꾼들과 화평치 못했던 일, 섬김받으려 했던 마음과 사심 등 비

1988년, 주님을 영접한 후 이 세상의 변질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좋으신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3년 후 주님을 믿지 않던 남편(한상경 집사)도 전도해 함께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궁금했고, 영의 세계가 무척 알고 싶었지요. 마음이 갈급하니 영성 훈련원이나 기도원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참 목자를 찾던 중,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1994년 12월 31일, 저희 가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해복 권사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며 영적 궁금증이 명쾌하게 풀려졌지요. 갈급했던 제 영혼은 물 만난 고기처럼 마냥 기뻐했습니다.

1999년 9월 어느 날, 꿈에 당회장님께서 깨어진 독이 불도록 명하시니 독이 불고, 큰 나무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열매들에게 "따져라." 명하시니 큰 바구니에 열매가 가득히 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회장님을 더욱 신뢰하게 됐지요.

2000년 3월, 당회장님 기도로 전남 무안 바닷가의 짠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출 15:25). 이 권능의 무안단물을 통해 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있지요. 남편도 무안단물을 복용하며 수년 동안 고생하던 기관지염을 치료받았습니다.

2004년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진리가 떠올랐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자녀들에게 내 의견을 주장한 일,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 탓으로만 돌리며 제 잘못은 없다고 착각했던 일, 남편과 잦은 말다툼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꺼리게 된 일 등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상대의 티만 보고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노력하며 불같이 기도하니, 모든 것이 제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침내 겸비한 마음이 되니 어느 누구와도 걸림이 되지 않고 기쁨이 임했지요.

또한 '이럴 때 목자라면 어찌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행하니 비진리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벗어지며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자궁근종을 치료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주를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군 입대 전 컴퓨터 게임에만 심취했던 아들이 2011년 3월, 전역한 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을 통회자복하고 180도로 변화한 것입니다. 연합성결신학교에 편입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한지민 교육전도사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남편은 남장년 교구 조장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딸 한송이 자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참 행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02년 6월, 저는 아내 린메화 성도의 인도로 대만 만민교회에 출석했습니다. GCN 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리니 천국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의 역사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2008년 1월, 우측 발목 윗부분에 종기가 하나 돋더니 점점 많아져 마침내 정강이 부위로까지 퍼졌습니다. 종기에서 흐르는 고름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통증이 심해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지요. 봉와직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업인 영업용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매일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봉와직염을 치료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장부성 성도 (대만 만민교회)

주일 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즉시 통증은 사라졌지만 말끔히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담임 김경희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과의 죄의 담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고 권면하시며 크리스천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친척들과 함께 스트립 쇼를 관람한 것이 떠올랐지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했다는 사실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이내 깨닫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봉와직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택시 안팎으로 간증 사례를 부착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제 택시를 타는 손님들은 당회장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의 역사가 담긴 '권능 DVD'를 시청할 수 있지요. 또한 손님이 미국인이면 영어로 된 만민뉴스를, 한국인이면 한국어 만민뉴스를 드립니다. 일본인이면 일본어 판 당회장님 저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믿음의 분량』, 『지옥』 등을 전해 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 앞으로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202-5547
- 서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창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3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기(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